

날씨

봄철

농업

◇ 3·4·5 월을 살펴본다

기상평론가 김 우 탁

○ 3월

植物期間線이 출발하는 때

3월이면 달력상으로 보아도 이제 봄의 계절로 접어드는 셈이 되지만, 누군가가 말했듯, 「겨울의 주권은 물러가지만 봄은 아직 지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다.

이달에도 대설(大雪)이 내리는가 하면 중부지방에서는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위가 물러오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이른바 『봄비』라는 것이 자주 내리기도 하며 그 스산함과 울썸느스러움이 『겨울비』에 못지 않

다.

이러한 모든 변덕도 봄을 가져다 주려는 하늘의 시련이러니 생각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 3월이다.

남부지방은 중부지방보다 20일 가량 앞선 이달 상순부터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든다.

하루의 평균기온이 섭씨 5도에 이르는 이른바 식물기간선(植物期間線)이라는 것도 초하루께 부터 남해안 지방을 출발하게 된다. 그래서 10일 경이면 광주, 대구, 삼척을 잇는 선까지 북상하게 된다.

그러나 아침 저녁의 기온차로 해서 서릿발(霜柱)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보리밭에 흙덮기와 밭기를

◇ 봄철의 날씨와 농사 ◇

잘해주어야 한다. 보리밭을 밟을 때는 그 지방의 풍향과 같은 방향으로 밟을 것이며 어린 이삭이 형성됐을 때는 밟아줘서는 안된다.

남부지방에 봄기운이 감도는 것과는 달리 중부지방은 상순이 지나기까지는 아직 겨울의 연속이다. 한결 풀렸는가 싶으면 어느틈에 다시 영하의 추위를 몰고오곤 한다.

그래서 6일이 경칩이지만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 물론 식물도 아직 깨날 엄두를 못낸다. 기록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상순에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가 적지않았다.

自然歷 이용한 營農도 좋아

따라서 이달은 남북의 계절차가 두드러지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

계절의 이동이 빨랐다 늦었다 하며 또 남북의 계절차이가 심한 이달은, 자기 고장의 동식물 계절을 잘 관측해서 농작업에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의 하나가 된다.

기상관측에서는 온도계로 측정한 추위라든가 더위로서 식물의 개화기나 생육시기를 가름하지만, 온도계가 없었던 옛날에는 거꾸로 꽃이 핀다든가 철새가 오고가는 것을 보고 양기(陽氣)가 늦고 빠름을 판단했으니 이를 가리켜 자연력(自然曆)이라 부른다.

통계에 따르면 개구리와 개미는 이달 하순부터 4월상순 사이에 나타나고 뱀은 이보다 한달쯤 늦게 선을 보인다.

한편 식물의 자연력을 보면 화신계 1호가 되는 매화는 이달초에 남해안 지방으로 상륙하고 진달래는 3월 중순에 울산방면으로 먼저 발을 부친다.

진달래가 피은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비가 나타나 이 두가지 동식물은 북상의 속도를 같이 한다. 따라서 이들의 출현이 늦고 빠른 것도 바로 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된다.

날씨변화 감안해 농약등 살포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3월은 날씨의 변화가 빠르다. 대개는 2~3일이 멀다하고 날씨가 흐려지고, 맑은 날이 하루면 흐린날은 사흘쯤이 된다. 물론 그새 비도 내린다. 하순이 되면 이런 변화는 더해진다.

그래서 밀·보리밭에 비료를 줄때나 과수에 약뿌리기를 할때는 3월의 이 번덕스런 날씨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니까 날씨변화의 주기를 잘 잡아서, 맑고 바람없는 날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중부지방은 하순에도 큰눈이 내리는 예가 드물지 않은데 기록

에 따르면 40「센티미터」가 넘는 폭설이 이달 하순에 있었다.

解土로 배수작업에 신경쓸 때

그리고 기온과 지온이 높아감에 따라 토양중에는 화학반응이 점차 촉진돼 해로운 물질이 생기기 쉬우니까, 배수작업과 토양소독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강수량은 남해안 지방부터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평균 80「밀리」내외 그밖에 지방은 50「밀리」내외가 된다.

○ 4 월

저기압통과 많아 비바람 잦아

『부지깽이도 거꾸로 꽃아 놓으면 산다』는 계절이다.

모든 식물이 새순을 키우고 갖가지 꽃나무들이 다투어 꽃을 피운다. 그런가하면 경칩이 지나도 좀처럼 움직일줄 모르던 동면(冬眠)의 동물들이 일제히 땅밖으로 나오고, 제비도 날아온다. 그래서 이달은 식물의 계절이자 동물의 계절이기도 한 것이다.

이같이 동식물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비해 날씨는 전달과 같이 심술궂다. 우리 속담에도 『3월(음력) 바람

에 선늘은이 얼어죽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세시기(歲時記)에도 『2월에서 3월(음력)로 바뀔 때는 비바람의 차기가 겨울같다. 이를 속칭해서 화투연(花妬娟—꽃샘)이라한다』고 했다.

이처럼 4월에는 저기압(低氣壓)이나 전선(前線—기압골)의 통과가 잦고 그럴때마다 비바람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옛날 중국에서는 이무렵이 되면 언제나 바람이 세지므로 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찬밥을 먹게 됐다는 한식절의 유래도, 이러한 4월의 기후에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黃砂현상으로 동화작용 방해

바람이 많이 부니까 흙먼지도 많이 나른다. 그런데 그건 보통 흙먼지가 아니라 이른바 황사(黃砂)라고 하는 것이다.

중국 황하(黃河) 상류지역에 있는 누런 모래먼지가 강한 바람에 실려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건데, 황사가 낄날은 세상이 온통 누렇다. 그 누런 흙먼지가 이제 막 돌아난 새싹위에 앉으면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생육상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고 일조율에도 관계가 있게 된다.

◇ 봄철의 날씨와 농사 ◇

그러니까 황사가 낀 다음에 곧 비라도 내리서 대지를 말끔히 씻어준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못할 때는 작물의 잎사귀 위에 앉은 모래먼지를 털고 닦아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다.

4월은 벼꽃의 제절이기도 한데, 상순에 남해안 지방에서 시작해서 중순이면 중부지방까지 올라오게 된다.

뜻밖의 늦서리해에 주의해야

4월의 기상에서, 특히 작물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늦서리다.

우리나라의 평균 마지막 서리(終霜)은 4월 중순이 한계인데, 가장 늦었던 시기를 보면, 남부내륙지방에서 5월중순에도 있었다. 봄철에 생기는 농작물의 동상해(凍霜害)는 대개 이 늦서리에 기인할 때가 많다.

늦서리가 생기는 것은 하늘에 구름 한점없이 맑은날 밤, 지면(地面)의 복사냉각이 심할때 생긴다. 따라서 이달에 밤하늘이 맑고 초저녁 기온의 하강율이 클때는 일단 늦서리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늦서리로 해서 피해가 생길때의 전후기상 상황을 보면, 봄비가 내린 다음의 하루나 이틀 후가 가장 위태로운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늦서리

로 인한 피해는 중부지방보다, 남부내륙지방이 항상 크다. 그 까닭은 남부지방이 중부지방에 비해 식물의 발육이 빠르기 때문이다.

이달의 평균서리일 수는, 중부내륙과 호남내륙지방이 4~7일, 그밖에 지방은 1~3일이다. 그리고 이달의 평균 결빙일 수는 2~4일 가량 된다.

다음 강수량은 상순이 30「밀리」내외, 중순이 20「밀리」내외 하순이 15~35「밀리」로서 월 총강수량은 중부가 70「밀리」내외 남부는 60~백 20「밀리」가량 된다.

○ 5 월

호우·가뭄 대비한

농작업 필요

5월은 일년중 일상생활은 물론 농작업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기후다.

그러나 이달에도 계절을 역행(逆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기상현상의 망난이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형편이다.

우선 봄장마와 봄가뭄이 들때가 있어서, 막자라나는 새싹들을 물로 씻어버리기도 하고 말려 시들게 하기도 한다.

이달의 평균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65내지 백 50「밀리」가량 되는데, 지

역적으로 보면 남부지방에서는 남해안을 자주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마치 장마같이 연일 흐리고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중부지방에서는 봄철 가뭄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5월의 기후에서 또하나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신록한파(新綠寒波)이다.

수목에 새잎이 돌아나고 백가지 꽃이 만발하는 신록의 계절에, 난데없이 북쪽의 차거운 기류가 흘러 들어와 겨울을 방불케 하는 추위를 보일때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가리켜 신록한파라고 부른다. 대개는 늦서리 현상과 겹쳐서 나타난다.

비바람이 강한 날은 이런 냉기를 경계해야 하고, 또 밤하늘이 맑고 저녁 기온의 내림새가 클때는, 저면의 복사 냉각에 의한 냉기도 주의해야 함은 4월의 경우에서와 같다. 전주, 광주, 대구등 남부내륙지방에서는 이달 상순에 늦서리가 생긴 기록이 있으니, 이달 상순이 지나기까지는 늦서리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4월에 이어 이달에도 바람의 영향이 적지않다. 이른바 5월의 폭풍우(메이·스툼)라고 해서, 바다에서는 맹렬한 풍랑을 일으키고, 육지에서는 맹랑한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다분히 저돌적인 바람이다.

농작물에 해로운 훈풍불기도

이와는 달리 이달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훈풍』이라는 이름의 바람도 부는데, 이 바람은 작물에는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때가 많다. 왜냐하면 훈풍이란 것이 대개는 남동풍이 되는데 이 남동풍은 산을 넘어 오면서 몹시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물은 갈증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이달의 평균기온은 중부지방이 15~17도, 남부지방이 16~18도인데, 최고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일수를 보면 대구지방이 15일이나 되고, 그밖의 내륙지방은 9~12일, 해안지방은 3~5일 가량된다.

한편 이달은 일년중에서는 우박이 많은 계절에 해당된다.

원래 우박은 기온이 너무 낮으면 수증기가 적기 때문에 커지지 않으며, 또 기온이 너무 높으면 우박이 떨어지는 도중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땅위에서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름의 문턱인 이 계절에 가장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우박의 크기가 녹두알만한 것에서 콩알만한 것이 가장 많으나 기록으로는 직경이 5「센티」정도 되는 것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 신록한파가 덜칠 때 우박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